국내
마감시황

2026.3.5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투자심리 개선되며 반등

주요 외신, 이란이 미국에 종전 협상 제안했다고 보도
코스피 역대 2위, 코스닥 역대 1위 상승률 기록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583.90pt (+9.63%)	1,116.41pt (+14.10%)	831.22pt (+9.83%)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65.10 원 (+2.2 원)	3.5830% (-4.9bp)	6,862.50pt (-0.20%)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7,964 억	-15,527 억	-3,085 억
외국인	-1,569 억	+8,378 억	-33,674 억
기관	-17,186 억	+7,414 억	+37,344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역대급 하락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두 번째, 코스닥은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이란이 미국의 침공 다음 날 종전 협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알려지며 전쟁 장기화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날 KOSPI는 9.63%, KOSDAQ은 14.10%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44.8조원, KOSDAQ은 약 15.5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에서 1천억원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제약 업종을 매수했고, 금속과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1.7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기계/장비와 증권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에 힘입어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브로드컴 호실적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전쟁 수혜주임에도 전일 동반 하락했던 방산주가 반등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한화시스템(+30.00%), 원익IPS(+23.53%), 삼성전자(+11.27%)가 올랐고, CJ(-1.92%)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